

'자연특별시 무주' 경쟁력 강화

15일까지 20개 실·과·소 업무추진 방향 등 공유 '분야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자연특별시 무주가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11일부터 각 분야별 업무 점검 및 공유에 들어간 무주군은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라는 군정 목표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2024년 주요 업무보고회에서 황인홍 무주군수와 간부 공무원들은 문화예술과를 시작으로 15일 기획실까지, 총 20개 실과소가 수렴한 부서별 2023년도 주요 성과와 2024년 업무추진 방향, 그리고 팀별 추진 업무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무주군은 11일부터 문화예술과를 시작으로 15일 기획실까지 분야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한다.

특히 분야별 공약 및 현안 사업을 비롯한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비전 및 전략, 성공적 추진을 위한 분야별 세부 전략 등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져 추진 성과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주군은 올 한 해 △자연특별시 무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고 △관광 산업의 진흥과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성공적 추진, △세계 속 태권도 도시 위상 정립, △스마트

트한 농업·농촌으로 경쟁력 강화, △사회안전망 강화, △기후변화 대응, △지역성장을 이끄는 문화, △지역경제 성장잠재력 확충, △농촌생활권 정주여건 개선, △새로운 발전동력을 만들어 가는 행정 등 핵심 전략을 추진해 갈 방침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인구와 기후 문

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이 해야 할 일은 많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며 "주요 업무공유는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전념하자는 취지인 만큼 분야별 업무계획을 토대로 무주발전과 군민 행복을 주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글로벌 인재 육성 위한 영어 캠프 진행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초등영어 학습지원사업 일한 실시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은 겨울방학을 맞아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간 '2024 Dream Big in English Camp'라는 주제로 인천광역시 영어마을에서 영어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올해 신규시행한 '초등영어 학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학생들이 다양한 영미문화체험을 통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글로벌 감각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5~6학년 초등학생 65명을 대상으로 읍면별



토셀교실반을 운영해 영어학습지도를 해왔으며, 이번 캠프에는 56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팀별로 영어퀴즈를 풀고

스포츠 활동 게임을 통해 스포츠 영어 용어를 배우기도 했으며, '호주 황무지에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생존을 위한 서바이벌 방법을 팀원들과 토론하는 등 영어학습시간을 가졌다.

또한 실제 레스토랑에서 지켜야 하는 예의범절에 대해 영어로 배워보는 수업도 참여하고, 출국 시 필요한 절차들을 영어로 배워보고 비행기 모형에 탑승하는 체험도 가졌다.

2박 3일간 학생들이 참여한 프로그램은 총 16개의 프로그램으로, 마지막 날에는 수료식을 열어 학생들에게 영어캠프 수료증을 전달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진안군은 11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및 농작물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상반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40명)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12일에는 산악초터운에서 참여 대상자 운영교육을 실시하고 2024년 6월 30일까지 본격 운영한다.

진안군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은

야생멧돼지 ASF을 옮길 수 있는 멧돼지 퇴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겨울철 멧돼지·고라니·까치·경의 집종적인 포획 활동으로 개체수를 줄임으로써 양돈 농가를 보호하고 농작물 및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들은 멧돼지 및 고라니 등 유해야

생동물이 민가나 농작물 경작지에 출몰 시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피해방지단이 출동해 포획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한 피해방지단 출동 전 반드시 마을이장 및 신고자에게 사전에 연락해 불법 수렵으로 오인돼 신고 되는 사례가 없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포획 시간은 경찰서 총기 관리 기준에 따라 철저히 운영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가 2023년 운영 결과 210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농산물 유통 기반 마련 최선

진안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2023년 매출액 210억원 달성

진안군은 11일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가 2023년 운영 결과 210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진안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2013년 3월 설립해 매출액 54억원을 시작으로 해마다 지속적 성장을 해왔으며, 2023년 매출액은 산지유통센터 설립 이래 최초로 이은 당기목표 매출액인 192억 대비 109.4%를 웃도는 수치이다.

진안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2013년 출범 당시 수박, 사과 선별장 신축 및 증축을 통해 선별라인을 구축하고, 2개 품목에 대한 공동선별·출하를 시작으로 2021년에는 진안군 대표 품목으로 육성 중이었던 토마토 품목에 대한 시범 출하에 이어 2022년 토마토 선별장 증축을 완료하여 본격 운영함에 따라 현재 '수박, 사과, 토마토' 3개 품목이 대표적으로 공동선별하여 출하하고 있다.

또한 2015년에는 GAP(우수농산물 관리) 시설 기준 충족을 위해 선별과 저장시설을 개보수해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선정기준을 통과하고 GAP 시설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특히 위생적인 작업환경과 전문 장비를 갖춘 선별장에서 엄격한 선별, 규격화, 규모화로 상품화된 청정진안의 신선한 농산물은 도매시장, 농협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와의 시장교섭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수출이나 비대면마케팅(온라인, B2B, 홈쇼핑 등)과 같은 신시장 개척 및 다양한 유통관로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진안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최종진 대표는 "진안군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공산 품목 및 조직 확대육성을 통한 매출액 200억 초과 달성의 쾌거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진안군 농산물 유통을 위한 다양한 홍보·마케팅 추진 및 관로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수 농축산유통과장은 "포장재비, 물류비 등 상품화 비용 지원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진안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림재해 일자리사업 근로자 모집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서영성)는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산림보호를 위해 임도관리단 모집을 시작으로 2024년도 산림재해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근로자 79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계획 인원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0명, 모니터링 요원 1명,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12명, 산림보호지원단 2명, 임도관리단 4명으로 무주국유림관리소 관내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방법은 2024년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의거하여 최종접수가 높은 참여자 순으로 선발하며, 선발된 근로자들은 근무하는 동안 산불예방, 산림병해충방제, 산사태예방 전반에 걸쳐 산림을 지키는데 앞장서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에 산림재해일자리 근로자 선발은 국유림 산림보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활 안전 소득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출생아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 확대

진안군은 11일 출생순위의 상관없이 일괄 200만원씩 지급하던 첫만남이용권을 올해부터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확대해 차등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으로,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된다.

지급된 포인트는 유흥업소·레저업종·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지정된 제공기관과 판매처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첫만남이용권의 신청기한은 아동 출생일을 포함해 1년 이내이며,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진안군 보건소 모자보건실(063-430-8513, 8550)로 문의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19일까지 배넛소 지원 신청 접수

무주군 한우 사육 기반 확충에 일조하고 있는 배넛소 지원이 농가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무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올해 물량에 대한 지원 신청을 오는 1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한우 사육 기반 시설을 갖춘 만 20세 이상 농업인인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는 농가당 5두 이내로 총 4~5농가에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배넛소를 지원받지 않은 농가 중 사육 규모가 30두 미만이면 우선 지원한다.

무주군 이은창 농업정책과장은 "송아지를 지원받아 키운 후 새끼를 낳게 해 소득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원받은 송아지 분에 대해서만 30개월 후

6~7개월령 암컷 송아지 가격으로 상환하면 된다"며 "과거 송아지를 데려다가 새끼를 낳으면 그 이득을 주인과 나누던 사업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현대 실정에 맞추어서 농가 만족도와 소득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소값 하락으로 위기를 맞은 축산 농가에 활기를 불어넣고, 축산업 진입장벽을 낮추는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넛소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세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